



# 고흥 신평마을 '수산 100년' 富를 낚다



고흥 거금도 적대봉 아래 자리한 신평마을. 울창한 산림을 뒤로하고 풍요로운 바다가 마을 앞을 장식한 아름다운 곳이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1918년부터 재래식 해태 생산 ... 전남 수산 100년의 '보물창고' "어촌조합 건물 문화유산 등록·수산업 콘텐츠 전시 체험공간으로"

그 마을에 가면 편안해진다. 세상의 근심걱정, 번다한 생각들은 눈 녹듯 사라진다. 고흥 거금도 신평(新平)마을. 이름처럼 평화롭고 아늑한 어촌이다. 필경 세상의 모든 만물은 그 이름대로 지음을 받고, 그 이름대로 운명이 결정된다 하지 않던가. 신평도 예외는 아니어서 이 한미한 어촌이 발하는 아우라는 이곳을 찾는 이의 마음을 부드럽게 다독여 준다.

늦여름과 초가을의 경계를 지나는 이즈음, 신평의 청색 바다는 눈부시게 아름답다. 그저 그런 수사가 아니다. 한눈에 들어오는 짙푸른 바다는 푸른 천을 펼쳐놓은 형상이다. 특유의 배산임해(背山臨海) 지형 때문인 터. 울창할망한 산세는 망망한 바다를 품어 안아 고흥반도를 향해 수긋하게 뻗어 있다.

무엇보다 신평은 유서 깊은 어촌이다. 고흥반도 남단의 고봉명산인 적대봉의 북방산 아래 위치한다. 왼쪽으로는 천동산, 오른쪽으로는 천관산이 자리하며 인근에 월포마을과 동정마을이 이웃한다. 바다 너머로는 녹동항이 지척이고 사슴 지형의 소록도(小鹿島)도 손에 잡힐 듯 가깝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신평 마을의 가치 또한 남다르다. 마을 중앙에 자리한, 일제 강점기 지어진 어업조합 건물이 이를 방증한다. 시간의 풍화가 빛을 퇴락한 분위기에 불구하고, 건물은 한때 영화(榮華)의 중심지였다는 사실을 말없이 웅변한다.

마을 이름을 달고 있는 신평화(72)씨는 "1918년 목가상이라는 이름을 가진 일본 사람이 말뚝을 박아 재래식 해태(김)를 재배하기 시작했다"며 "이후 1922년에 금산해태조합이 설립됐으며 이후 전국적인 어촌조합으로 승격됐다"고 말했다.

이곳 어업조합 건물은 해태조합이 설립되던 1922년 건립됐다. 붉은 벽돌의 슬레이트 지붕은 전형적인 일본식 구조로, 지금은 흰색 페인트가 덧칠해져 붉은색이 희미하다. 전체적인 모형과 이미지는 그대로인데 당시 붉은 벽돌은 소록도병원 벽돌공장에서 찍어내던 것이라. 푸른 바다를 가로질러 역사



해태(김) 생산으로 마을 전성기를 구가했던 1920년대 일제강점기 당시 건물은 물론 1970년대 건물들이 그대로 남아 있다.

의 침윤(浸潤)은 이렇듯 명징하게 실재하는가 보다. 당시에는 호풍불을 밝혀가며 김을 생산할 만큼 해태 양식과 가공이 번성했다. 어업조합 건물 인근에 김 가공공장의 흔적이 남아 있다. 진 이장은 "당시 레슬링 김 일 선수의 건의로 전기시설이 도입됐는데, 고흥군 섬 지역에서는 최초로 전깃불이 들어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흥망성쇠의 시류를 이긋 못한 피해갈 수는 없었다. 1970년대 어업조합이 고흥군 수산업 협동조합으로 합병되면서 마을은 점차 공동화 위기에 직면한다. 개발위원을 맡고 있는 권기풍(80)씨는 "신평 김이라고 하면 묻지도 않고 사가던 시절이 있었다. 오죽하면 동네 개들도 5000원짜리를 물고 다닌다는 말이 있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배대만 남은 어촌건물을 둘러보며 주민들의 말이 허언이 아님을 실감한다. 건물 주위로 160년이 넘는 향나무가 이곳의 역사와 가치를 보증한다. 향

나무는 현자처럼 마을을 굽어보며 특유의 향기를 내뿜는다. 다행히 이곳 출신 배평암 씨라는 분이 건물의 역사성과 오래된 향나무의 가치를 알아본 모양이다. 지인에게 매일 의향을 타진해, 2011년 5월 수협으로부터 건물을 사들였다.

수십 년 전만 해도 김은 고흥이 주산지였다. 그 중심에 신평이 있었고, 어촌조합 건물이 전초기지였다. 이곳은 김 양식의 역사를 담고 있다는 면에서 전남 수산 100년의 보고(寶庫)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민들은 어촌조합 건물이 전남도 문화자산으로 등록됐으면 하는 눈치다. 또한 김양식, 수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를 전시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기를 원한다. 머잖은 장래에 신평은 근대투어 명소로 부상할 것 같다. 지금 신평은 평화로운 이미지에서 깨어나, 미래를 향해 새롭게 도약하고 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 신평마을은?

#### 72가구 주민 103명 ... 거금도의 관문, 다리 생겨 쇠락의 길

고흥군 금산면 거금도 북동쪽에 위치한 신평마을은 한적한 해안가 마을이다. 지난 2013년 거금대교가 개통되기 이전까지는 신평마을에 있는 선착장을 중심으로 북적이던 곳이다. 예전에는 선착장에서 녹동 가는 배가 30분 간격으로 운항하던 거금도의 관문이었다. 그러나 다리가 생기면서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

마을 지명 '신평(新平)'은 마을의 평안을 비는 의미이다. 옛날 난리가 났을 때 마을 앞 해안에 큰 암석 동굴이 있어 주민들이 화를 피했다. 그 이후 그 동굴을 '평산암(平山岩)'이라 부르다가 신평으로 개칭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일주도로에서 신평선착장 가는 '평산길'도 여기에서 유래했다.

원래 선착장 일대는 바다였다. 주민들이 마을 부지 확장을 위해 수레와 지게로 흙을 날라 수작업으로 해안을 매립했다. 붕괴되기를 14번. 결국 완공해 지금의 선착장과 옛 김가공공장, 마을공동창고 일대 부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

해안도로를 따라 큰 건물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지금은 펜션, 식당 밖에 보이지 않지만 향구가 번성하던 시기에는 수협은행, 김 가공공장 등 주요 건물들이 자리잡고 있었다. 학교도 있었지만 지금은 폐교됐다.

주민들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현재 72가구 103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어업과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주요 특산물은 미역, 다시마, 쌀, 양파, 파 등이다. 신평마을 앞에 위치한 무인도 부근을 이용해 살포식으로 전복을 양식하고 톳 종자도 생산하고 있다. 또 마을 어업권 45ha를 확보해 바지락, 고막, 석화, 낙지, 문어, 갯지렁이도 채취하고 있다.

신평마을 한가운데에는 마을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진료소가 있다. 선박편으로 병원에 가야만 했던 신평마을 주민들이 마을공동부지를 기부해 지난 1986년 건립됐다. 신평마을은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 어촌 6차 산업화 시범사업 대상마을에 선정됐고, 금산 신평권역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도 추진중이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전남 어촌의 발전·어민 소득증대 위해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가 함께 합니다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는 전남 어촌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가공·유통·서비스를 돕고, 어촌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되었습니다. 센터는 어촌특화발전 지원특별법에 근거한 기관으로, 해양수산부와 전남도가 선정한 어촌들을 대상으로 교육·마케팅·홍보·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전남 어촌과 지역기관·기업이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고, 그로 인해 상호 창조적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도록 다양한 연계사업도 실시합니다. 이를 위하여 센터는 전남 어촌과 '1사1촌 자매결연'을 맺고자 하는 지역 기관·기업들의 신청을 접수합니다. 또 전남 어촌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직거래할 도·소매, 유통 등과 관련된 지역기업의 참여도 기다립니다.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센터장 류재영  
문의 : 062-220-0581(임종현 사무국장 010-9601-6421)